

[자원봉사 웨비나 - 코로나19를 넘어 자원봉사의 지평을 열다]

2차. 코로나 블루의 시대, 안전하게 연결되기

2020.06.29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관계망의 축소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단절과 심리적 외로움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에 다양한 대응방안이 필요
- 안전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의 적절한 병행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실적 중심이 아닌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를 실천하고 진행할 수 있는 장기적 프로그램이 필요함.
-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중심의 실천, 그 실천적 노력에 자원봉사활동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관계의 회복이 주가 되어야 함.
- 언택트를 전제로 꾸준한 실천 노력을 이어가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신념을 가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통 개인별 관계망을 확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

신인철 사회적 외로움에 대응하기

발 표 : 신인철(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사회적 관계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외로움 심화)

-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됨. 그 사회적 파급효과 중에서도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요인으로 인한 사회적 외로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한국인들이 느끼는 외로움 지수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수치가 상승하고 있는데 의식적, 자발적으로 홀로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고독과 무의식적, 비자발적인 홀로 있음으로 오는 부정응적인 경험인 외로움은 차이가 있으며 이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이 그 요인 중 하나임. 또한, 외로움은 애착 대상이 없어 나타나는 정서적 외로움과 사회적 연결망이 없어 나타나는 사회적 외로움으로 구분되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단절은 사회적 연결망의 부재로 오는 사회적 외로움을 유발시킴. 이에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 상황임.
- 그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연결망이 필요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 중 특히 장애인들의 관계망이 절대적으로 힘들어지고 있으며, 복지시설들을 이용할 수 없는 어르신들도 점점 더 그 외로움이 더해가고 있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파급효과)

- 코로나19가 끼친 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집단주의의 강화로 온 사회 결속력의 개념 전환, 코로나 감염집단에 대한 혐오주의가 증가함으로써 오는 사회 결속력의 저하에 주목해야 함. 현재 집단의 이익이 강조되면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신가족주의 개념이 강화되고 있으며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통제가 활발해지면서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였음. 하지만 사회적 관계망이 약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은 어느 집단에도 속하지 못하고 고립화와 외로움이 심화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함. 코로나19의 기원, 확산 책임에 대한 잠재의식이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발현되면서 오는 혐오주의가 심각한 상황임. 이런 사회 분위기의 흐름을 시민 문화의 힘인 자원봉사로 이끌어야 할 시기임.

(사회적 단절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의 대응방안)

- 자원봉사는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에도 큰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 관계의 연결과 복원에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임.
-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인 사회적 고립자(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외로움 경험자(1인 가구, 독거노인 등), 사회적 차별과 혐오의 피해자(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중국 교포, 이주민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필요한 지원이 무엇일지 고민해야 할 것.
- 자원봉사활동 시 안전한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

(다양한 접근방법의 해외 예시)

- Online Volunteering Service 운영 : UNV에서 자원봉사자와 대상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접촉을 통한 자원봉사자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연결)
 - 영국의 CHD Living : 코로나19로 방문자 감소자 감소로 인한 노인의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조부모 입양(손자녀 연결 맺기)으로 온라인상에서 관계 맺기를 진행 및 사회적 관계 맺기에 상처를 받은 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참여 유도 방안을 마련함
 - 영국의 빅런치 : 공공의 열린 공간에서 식사 등 가벼운 관계 맺기를 시작으로 점차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
 - 온라인 상황에서는 오프라인상에 비해 관계 맺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계 맺기 방식을 다층화(느슨하지만 끈끈한 형태 등)와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함.
 - 실적 중심의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실적에서 벗어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진행하여야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될 수 있음.
-

안전하게 연결되기, 관계와 재발견

패 널 : 김승수(뚝뚝도서관 관장)

(코로나 때문에 vs 코로나 덕분에)

- 코로나로 평범한 일상은 무너져 버렸고, 이전과 달리 우리의 삶은 꽤 불편해졌지만, 코로나 덕분에 자연과 환경의 중요성, 인위적 개발과 파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소중함과 중요성, 사회적 신뢰에 대해 잃었던 감각을 깨치는 계기도 되어 한편으로는 서로가 성장하는 시기가 될 수 있었음.

(대면방식과 비대면방식의 효율적 활용)

- 대면적 생활이 기본이 되겠지만 비대면적 생활 또한 적극적 활용해야 하고, 사회적 만남, 교육의 방식, 회의의 방식 등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들기 시작
- 온라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노력(예: 개인 스마트기기), 비대면으로 연대할 수 있는 시도(예: 온라인 성 소수자 운동), 언택트가 전제되지만, 로컬단위의 대면접촉기회의 시도(예: 나눔가게, 지역의 공원, 가게 앞 마루, 동네 가게 등) 필요

(우리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신념)

- 코로나19를 통해 전 국민이 시장과 국가의 개입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고 있으며, 사회적 신뢰의 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있음 (마스크 공급, 공공의료 지원, 재난소득지원금을 받아보는 경험 등)
- 이런 신뢰에 대한 경험이 저소득층, 보다 어려운 분들에게 확대되어 나가야 하며, 더 잦은 안부, 더 잦은 대면·비대면 만남을 통한 소통에 대해 고민 필요.
- 행정 중심이 아닌 민간중심의 실천, 그 실천적 노력에 자원봉사활동가가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별한 이벤트가 아닌 일상적인 관계의 회복을 의미
- 지역과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꾸준한 실천 노력이 반복이 결국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있다는 신념에 든든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

(개인과 공동체적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가는 다양한 활동 전개)

- 코로나 19로 인해 집단적 모임의 횟수나 기회는 줄어들지만,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모임과 서로가 규칙을 준수한다면 작은 대면적 만남은 가능.
- 자원봉사 또한 단체중심으로 활동을 진행하기보다 자원봉사가 개인별 관계망을 확장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
- 그 결과로 각자의 삶을 존중하며, 보다 공동체적 의미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관계가 또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